

사회



9일 광주 금호고 교정에서 배원표 교장과 학생들이 정담을 나누며 걷고 있다. 금호고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5년간 수능성적을 분석해 발표한 '전국 7개 성적향상 우수학교' 중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금호고, 5년간 수능성적 향상 전국 우수학교 선정 비결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교사멘토제'

교사·학생 결연 ... 학업 포기 없게 지도

10여개 학습동아리·재단 지원도 한몫

“교육엔 낙오자가 있어선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다 보듬고 가야 할 우리들의 아이들입니다. 어떤 이유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전 교직원 이 정성을 다해 매진해온 덕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9일 최근 5년간 수능성적을 분석, 성적 우수학교로 선정·발표한 전국의 7개 학교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금호고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금호고는 지난 5년간 수능 성적이 언어와 수리 하위등급(6~9등급) 비율은 10~15% 줄고 상위등

급(1~3등급)은 1~2%씩 꾸준히 상승해 성적 향상도가 두드러졌다. 이 학교 배원표(61) 교장은 그 비결에 대해 “학생이 교문을 들어설 때(입학)부터 나갈 때(졸업)까지 학교, 교사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영·수 중심으로 20여 명의 교사가 지도하는 10여개의 ‘학습동아리’는 1·2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한 몫을 했다. 진지하고 엄격한 자율학습 분위기도 성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유재문(48) 진학부장은 “광주시내 어떤 학교도 우리 학교만큼 야간 자율학습 분위기가 엄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은 자율학습 시간에 잠을 잘 수도 학원에 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 뒤에는 교사들의 숨은 열정과 함께 재단의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재단이 내놓은 연간 1억원의 지원금은 교사와 학생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배 교장은 “학비면제 학생이 10%가 넘을 정도로 중산층 가정이 취약하지만 교육열은 누구 못지 않

다”고 전했다. 배 교장은 이어 “좋은 학교는 하위권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돕는 학교”라며 “내년부터는 학력 향상에도 역점을 두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미래형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더십 교육은 올해 ‘학교특색살리기 선도학교’로 지정되면서 배 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교육방침으로, 읽고 쓰고 토론하기, 명사초청 릴레이특강, 리더십 교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교과부는 수능성적이 향상된 전국의 40개교(특목고, 자사고 제외)를 정밀분석해 이 가운데 전국에서 7개교를 우수 고교로 발표했으며, 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금호고가 선정됐다. /최형호기자 khh@kwangju.co.kr

휴일 도심 도로 주정차 내년 전국 확대

절대 금지구역은 제외

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9일 열린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와 후속조치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도심의 공휴일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부터 서울에서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를 시범 운영한데 이어 10월부터는 전국 470곳(244km 구간)에서 시행해왔다.

광주·전남은 10월부터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과 목포 북교4거리~동명동 구간 등 공휴일 도심 주차 40곳과 심야시장 주변 주차 허용구역 5곳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했다. 경찰은 이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적용하기로

했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 등이다. 한편 경찰청은 자전거의 형태를 위협하게 개조해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 축의금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향소심서 벌금 150만원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축의금을 낸 농협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룡)는 9일 선거 전 축의금을 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화순 모 농협 조합장 서모(61)씨에 대한 향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농협 선거에서의 금품수수는 선거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조합장 선거를 녀 달 앞둔 지난해 3월부터 조합원 6명의 자녀결혼 축의금으로 1인당 5만원씩, 모두 30만원을 제공하고, 특정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경찰 1명 쌀 1포대 씩 구매

농가 어려움 덜어주기

전남경찰 6천여 포대

경찰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찰관 1명이 쌀 1포대 씩을 사는 ‘1경(警) 쌀 1포대 구매운동’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9일 전남지역 농가 지원을 위해 6천710포대(1억3천420만원 상당)의 쌀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담양 대전면 강마을에서 생산한 쌀 600포대(1천200만원 상당)를 구매

했으며, 전남청 산하 21개 경찰서에서도 모두 6천110포대(1억2천220만원 상당)의 쌀을 샀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1경(警) 쌀 1포대 구매운동’ 희망자를 받은 결과 총 10만1천205포대(21억원 상당)의 쌀이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

쌀은 경찰서별로 인근 농민단체나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을 통해 직거래로 구매되며, 구내식당이나 기동대, 전경대 등의 급식용 쌀도 이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난방시설 부주의 화재 잇따라

광주·전남서 10여 건

광주·전남지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시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밤 9시께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에 사는 고모(43)씨의 집에서 불이나 내부면적 79.2㎡ 중 26㎡를 태우고 소방서출산 1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다. 고씨는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정용 LPG 가스통 밸브를 바퀴달 뒤 확인하려고 라이터를 켜 순간 ‘퐁’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에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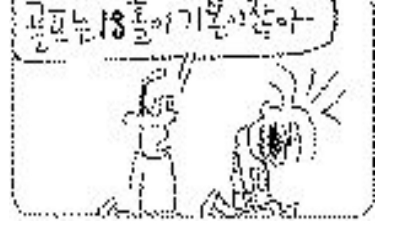
이에 앞서 지난 5일 오후 5시10분께는 광주시 서구 마북동 빈집에서 불이 나 3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진화됐다.

지난 3일에는 광양시 옥룡면 이모(여·32)씨의 집에서 난방을 위해 지퍼된 화목 보일러의 불씨가 주변 땀감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났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영암군 금정면 이모(70)씨의 집에서 이씨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나는 등 최근 한 달간 광주·전남에서만 10건 이상의 난방기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975) 김장동



북구 일부지역 단수·흐림

광주시는 9일 “각화2배수지 누수 시험으로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구 광주교육대와 동강대학교 주변 풍향동, 두암동 일부 지역에서 단수와 흐림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병헌 피소... “20억 협박 당했다”



“...톱스타 이병헌이 “신원미사의 남성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해 주목.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병헌과 그 매니저에게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며 20억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다”고 주장했다.

“...BH 측은 “이병헌이 지난해 가을에 만나 올 봄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성들이 ‘두 사람 사이의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이병헌이 협박에 불응하자 전 여자친구를 고소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BH 측은 또 “이병헌씨는 이 협박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사공의 화염으로 뜨는 주정차' (The fire of the boatman's fire). The ad features a large illustration of a boat on water and includes promotional text and a QR code.